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남수단서 부족간 충돌로 수백명 사망

지난 20년간 분쟁 ... 지난 한 해 동안 35만 명이 난민 신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한1서4:9-10)

남수단에서 두 경쟁 부족 간 분쟁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BBC가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남수단의 동부에 있는 종글레이 주에서 전통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무를레 부족과 로우 누어 부족이 가축을 빼고 뺏기며 충돌,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가브리엘 두오프 람 남수단 법률 집행담당 장관이 밝혔다.

남수단에서는 지난해 7월 북부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가축과 초지를 둘러싼 쟁탈전으로 이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충돌은 무를레 부족의 젊은이들이 무장한 채 이웃 경쟁 부족인 로우 누어 부족의 가축 방목장 8곳을 습격하면서 발생, 현지 주민들은 500명 이상이 숨지고 200여 명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에는 로우 누어 부족 전사 6000 명이 무를레 부족을 공격해 수백 명이 사망

했으며, 수천 명의 주민이 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다.

이번 분쟁은 남수단 정부군이 이미 1만 2000명의 군과 경찰을 종글레이 주에 배치해 주민들로부터 불법무기를 회수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남수단 정부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은 이 지역에 더욱 많은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 한 해 남수단에서 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 간 충돌로 35만 명이 난민 신세가 됐다고 밝혔다.

남수단은 지난 20년간 계속된 분쟁으로 지구 상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로 전락해 도로, 철도, 학교, 병원 등 시설이 거의 없어 주민들의 삶은 크게 피해를 입다 (출처:연합뉴스).

“여호와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역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느니라”(시편 146:6-7)

주님,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수단 모든 종족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종족간에 미움과 살인이 그치지 않는 이

땅을 돌아보시고, 이제 저들의 피흘림과 눈물을 멈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수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무기들을 회수한다 하여도 육체에 속한 정욕과 탐심, 분쟁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존재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서로를 멸망시킬 수 밖에 없는 죄된 생명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 엄위하신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의의 생명으로 회복하신 생명의 복음을 이 전쟁 한복판에 있는 남수단 모든 종족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부족간 충돌로 말미암아 고아와 과부로, 소경과 주린 자로 헤매이고 있는 35만명의 난민들이 존재적인 목마름과 영혼의 탄식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남수단 모든 종족과 방인들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24.365 제공] ▶ 관련기사 3면

INSIDE



▶ 기획
- 열방의 축복의 통로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정말 누구입니까?"



▶ 인터뷰
- 좁은 길을 걷기로 결단한
안선의 목사(대전성산감리교회)



김용의 선교사 컬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백성을 향한 주님의 열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이스라엘의 절망의 시기,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직시 하지 못한 채 구원 받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을 삼으시리로다!”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성.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담의 범죄이후 인간은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줄 다른 것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줄 진정한 의뢰를 만날 수 없었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날’에 멋진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사 26:2)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의의 나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백성은 마음과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약속을 지키는 신의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 이 신의를 완성하십니다. 왕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백성은 그 왕께 최고의 경배를 드림이 마땅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사 26:7,3)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그 나라의 백성은 우직하게 진리의 대로를 향해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 가치가 아니라 오직 진리로 직진하는 자입니다. 진리 외에 다른 여지를 두지 아니한, 자신을 꾸미거나 가면무도회가 없는 백성입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정말 심자가 복음의 가치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만큼 복음에 반짝 반응했다가 두려움으로 물러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진리만을 붙드는 자, 심지의 견고함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진리의 길을 걷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지켜주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엮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사 2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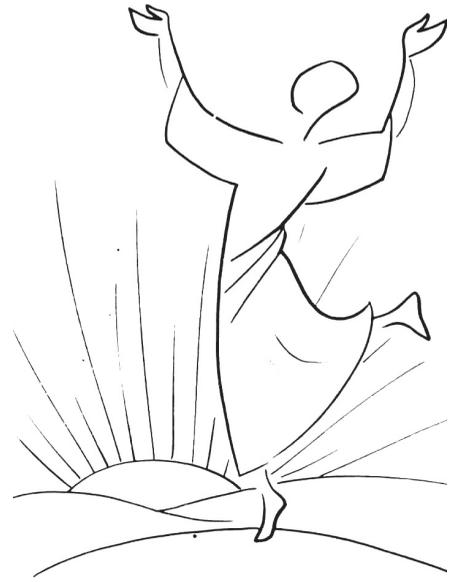
우리의 용기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친 세상앞에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도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의 세계를 반드시 없애시고 높이 솟은 성은 낮추시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의 도전을 진토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작고 초라해 보이며 빈궁하고 곤핍한 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확실하게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는 이 나라의 모형이 곧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초라하게 볼 만큼 작고 연약한 자였던 다윗. 어린 아이같이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주님은 다윗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당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이 드러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로다” (사 26:11)

주님만을 견고한 의뢰로 삼은 자, 신의를 지키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정직한 자, 겸손한 자를 통해 주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백성들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악의 열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때,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열정을 보면 사단도 부끄러워 떨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의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의 열정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고, 긴 역사의 여정을 이루시어 때가 차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창녀처럼 추해져 버린 당신의 백성을 순결한 신부로 회복하셨습니다. 주님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열정.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봅시다.

-메시지 정리

(순회선교단 대표)

생명의 떡

“하나님을 위한 가장 큰 예물”

레바논/마리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벧 2:17)

“무슬림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썩 죽어겠다!” 어느 날 무슬림 광신자들이 17세 소녀 마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급습하였다. 마리와 그녀의 부모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

“하나님을 택하겠어요. 쏘려면 쏘세요!” 마리는 용감하게 대답했다. 이에 그들은 마리와 마리의 가족들을 총살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틀 후 그 마을에 도착한 적십자 단원들은 기적을 목격했다. 마리가 탄환의 상처로 몸이 마비된 채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다.

마리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자 설명하기 어려운 평화가 내려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마리는 하나님께 약속했다.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이 온전하지 못하여 결혼도 할 수 없고 육체노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부모를 죽이고 저도 죽이려 했던 살인자와 같은 무슬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제 목숨이 그들을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숭한 기도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증거를 통해 레바논의 많은 무슬림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했다.

1990년. 15년에 걸친 레바논 내전이 맹위를 떨치던 때였다. 이 기간 동안 수천명이 살해되거나 부상을 당했고 수십 만 명이 해외로 도피하였다. 그러나 마리는 부상으로 마비된 삶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레바논에 남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대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가장 큰 예물은 헌금함에 넣을 수 없다. 우리 삶 자체가 가장 큰 예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진다. 마리처럼 박해를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았고 그것을 하나의 ‘예배행위’로 여겼다. 19세기 말의 리지외의 테레사(Theresa of Lisieux)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쁘게 고난을 견디면 그것이 숭한 설교보다 더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보다는 ‘너무 바빠요!’, ‘할 일이 태산 같아요!’와 같은 핑계만 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특이한 길을 보여주시며 어서 그 길로 걸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출처:주를 위해 죽다(2010), 규정규)

복음기도 포도 에세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 파키스탄과 인도의 유일한 통로 와가보더에서 진행되는 국기 하기식



국방색에 부채모양의 모자를 쓴 군복의 모습은 비슷하나 이들은 엄연히 서로 다른 나라의 군인이다. 파키스탄과 인도. 이 두 나라의 국기를 동시에 내리는 하기식이 펼쳐지는 파키스탄의 북동쪽에 위치한 와가보더(Waga Border). 인도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이곳에서 평화를 위해 진행되는 의식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매일 찾아온다. 2007년 1월 비전 트립으로 이곳에 방문했을 때도 응원을 돌우는자들 사이에서 이 의식은 진행되고 있었다. “파키스탄!”, “인도!” 자신들의 나라를 높이기 위해 외치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이 의식이 대신해줄 수는 없다. 이들의 막힌 담을 헐고 하나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그 비밀을 알게 될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엡 2:13-14)

- 자료제공 : WMM 비전트립팀 마른막대기 팀

십자가만 자랑하며



김성로 목사 (춘천한마음교회)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이 부활의 생명 바쳐 복음을 증거하라”

이 글은 복음기도동맹 주관으로 지난 2011년 12월 13~16일까지 진행된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모든 사람에게 믿음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행 17:31)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만한 증거를 주셨다. 따라서 복음에는 증인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전 15:3-4). 요나의 표적을 주셨다(눅 11:29-30). 이것보다 더 큰 사건, 더 큰 증거, 더 큰 표적은 없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 4:4)

하지만 이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다. 그 세상에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돈, 이성, 정욕의 노예가 되어 흑암 가운데 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혼미함 가운데 있다. 전능자가 오셨다 가신 후 마귀가 그냥 있을 리가 만무하다. 혼미케 하고 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내용에 회개가 빠지고, 부활이

빠져 있다. 당연히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예수 안에 모든 것(영생, 평강, 기쁨, 거룩함, 지식, 지혜...)이 있다. 오셨다 가신 전능자가 주신 것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었다. 이 땅의 썩어 질 것이 아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일 지라도(고후 4:7),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후 6:8-10)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드러났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였다는 것이 증명됐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죽임 당하신 어린양이시다(계 13:8).

선약과는 생명을 걸고 만드신 것이다.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영원한 피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내 죄를 위한 피다. 어린양의 피가 마귀를 이겼다(계 12:11).

부활하신 주를 믿고 사명을 감당하라

부활하신 주를 알고 나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진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게 된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말씀과 기도면 충분하게 된다. 부활의 표적 하나로 성경을 다 믿을 수 있게 해 놓으셨다. 제자들이 성경을 다 믿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다.

예전에 폐암에 걸렸다. 그러나 평강이 넘쳐흘렀다. 주님이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이 임해도 생명의 주인이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것을 믿는가?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확실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말씀하셨다. 주님이 우리도 보내신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 하라. 이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내 죄를 위한 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 하라

1면에 이어 - 수단은 어떤 나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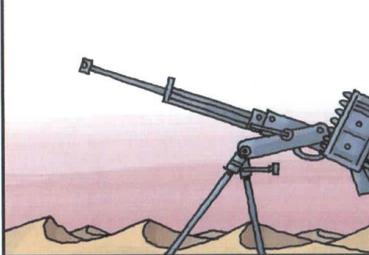
긴급히 기도가 필요한 나라



면적 250만km²(25.3배)
인구 4천319만 (0.9배)
도시화 45.2%
종족 아랍권 58.3% 아프리카의 빨쑤족 7.6%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인 33.8% 기타 0.3%
종교 이슬람교 61.38% 기독교 26.11%
종족종교 11.10% 무종교 1.40% 기타 0.01%
*()은 대한민국 대비

<출처: 세계지도정보 2010>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민주 공화국으로, 풍부한 농업과 광물자원이 있지만, 전쟁으로 통신수단이 붕괴되어 대부분 개발되지 않았다.



전쟁과 외교상의 고립으로 대다수가 기아상태에 있으며,



교회는 고통 가운데 성장했다. 50년간 지속되어 왔고, 1985년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다.



무슬림들은 추방당한 기독교 난민들에게 식량을 주면서 개종을 강요한다.



<출처: 만화 열방지도정보, 넥서스CROSS>

선교브리핑

물한그릇선교회, 남수단에 정수시설 보급과 복음전도 사역

깨끗한 물과 함께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물한그릇선교회(대표 권종승 선교사)는 지난 2월 4일부터 2월 18일까지 아프리카 남부 수단에 정수시설 보급과 복음전도 사역을 실시했다.

20년 동안 내전을 겪고, 수백만명의 희생을 치루었던 남수단은 개발의 기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황무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 선교사는 “포장된 도로라고는 대통령궁 앞 5킬로미터에만 놓여있던 길이 다였는데 곳곳에 새로운 길이 있음을 보고 놀랐다”며 “그러나 야생동물을 잡기위해 곳곳에 수풀을 태우는 모습이나 땅은 기름지나 농기구가 없어 개관하지 못하는 실정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내전으로 인해 교회와 학교는 무너지고, 위생상태는 열악해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



는 곳곳을 돌아보며 권선교사는 정수기로 박테리아를 걸러주고, 태양열을 이용해 물을 정화시키는 장치를 만드는 등 정수시설을 보급하고, 가는 곳마다 진정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했다.

우즈베키스탄, 공영방송에서 반기독교영화 상영 물의

최근 우즈베키스탄 공영방송이 개종 기독교인의 비판적인 삶을 그린 영화를 제작 발표해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방영된 이 영화는 기독교로 개종한 한 여인이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로 부터 갖은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며, 그 여인은 결국 목을 매어 자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영화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시신을 그들의 공동묘지에 묻히지 못하게 해, 결국 사막에 묻힌 후 빗물에 쓸려 나온 시체를 동네 개가 먹는다는 설정으로 끝을 맺고 있다.

소식통은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이슬람식 공동묘지에 가족들과 함께 매장되기를 원하지만, 개종자들의 유해는 이곳 전통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기독교 공영묘지도 있지만, 개종자들도 민족 풍습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은 문화적 풍토에서 현지 기독교인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영방송이 이같이 종교색 짙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여, 공포 정치와 우민정치를 벌이는 정부당국의 잘못된 정책이 멈춰서게 기도해달라”고 덧붙였다.

| 열방의 축복의 통로 (1)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정말 누구입니까?

기독교포비아(기독교혐오증)가 전세계에서 발흥하고 있다.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인류 역사 이래 최대치에 이른다. 전문가들의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독교계의 부정적인 현상들이 경쟁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일 수는 없다. 흑자는 반문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증거들이 있는가. 물론 있다. 주님이 이 땅에 복음과 함께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는지를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다. 주님의 지상 대명인 선교완성, 그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을 성경은 ‘축복의 통로’라 부른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의 통로’들이 열방을 어떻게 부요하게 했을까. 다양한 시대, 다양한 현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증인들의 삶과 사역을 연속 소개한다. <편집자>

남편 따라산 채로 화장하는 사티철편

“윌리엄 캐리는 식물학자였습니다. 인도에서만 발견되는 유칼립투스 나무의 변종인 ‘카레야 헤르베세아’는 캐리의 이름에서 유래될 정도로 그는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입증한 인도 최초의 학자입니다.”

“그는 인도에 증기기관을 소개한 최초의 영국인이며, 최초로 국산 종이를 생산한 기술자입니다.”

“캐리는 인도에 만연하던 고리대금업에 대항해서 저축은행 아이디어를 인도에 소개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인도 최초로 나병 환자들에게 인간적 처우를 하도록 캠페인을 벌인 인권운동가입니다.”

인도 선교사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에 대한 평가는 이밖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미디어 개척자, 농업전문가, 번역자와 교육자, 천문학자, 도서관 창시자, 산림보호 운동가, 여성 권리옹호자, 공무원, 문화번역자 등이 그에게 따라다니는 별칭이다.

영국에서 구두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 그리고 그를 인도 땅으로 보내신 주님은 인도 근대 역사에서 그의 이름을 제외하면 정리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영역을 개척하게 하셨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신도가 글을 읽을 수 없어도 종교생활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더욱 다르다. 그들은

‘캐리는 유칼립스나무
변종 발견한 식물학자’
‘인도최초로 나병환자의
인권보호 앞장서’

여기를 가든 언어를 문자화시켰다. 또 근대 인쇄 기술을 도입해 성경과 전도지, 교재를 찍어냈다. 이 과정에서 선교사들은 지구상 대부분의 문자를 만들어냈으며, 종종 그 나라에서 최초로 인쇄기를 도입한 주역이 됐다. 이와 함께 문맹 퇴치운동을 전개하고,

여성과 비엘리트 계층과 노예들을 교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근대 인도역사에서 영국 선교사들은 초창기에 40개 언어 21만2000권이 넘는 책을 출판했다고 한다.

캐리는 동양 언어로 인쇄된 최초의 신문을 출간한 선교사였다. 그가 펴낸 ‘인도의 친구’라는 영문 잡지는 19세기 전반부에 인

‘저축은행의 아이디어로
고리대금의 악폐철폐’
‘인간이 죄인임을 입증 ...
윤리도덕관 개혁’

도 사회개혁을 일으킨 원동력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는 귀신과 여자들만 사용한다고 여겨지던 뱀갈어를 인도의 가장 뛰어난 문학 언어로 변화시키기도 했다.

캐리는 다신론 사회인 인도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각인시켰다. 인간의

죄성을 부인하고 자신의 신성에 대한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인도 사회에 캐리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덕 개혁자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는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하는 것이 무지가 아니라 죄라는 것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참된 영성은 죄를 회개할 때 비로서 시작된다는 그의 가르침은 19세기 인도 사회를 발각 뒤집어 놓았다.

이같은 그의 활동으로 당시 위대한 힌두교 학자중 한 사람인 라자 람 모훈 로이는 인도의 영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도덕 원리의 이해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40여개의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한 캐리는 인도의 어두움에 진리의 빛을 비추려고 가능한 모든 매체를 사용한 전도자였다. 또 남편이 죽으면 함께 아내를 산 채로 화장시키는 끔찍한 제도 ‘사티’를 철폐시킨 주역이기도 했다. 근대 인도사회에서 주님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로 윌리엄 캐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다.

C.K

서구사회의 방관속에 악화하는 ‘기독교혐오증’

소말리아 여권운동가, 무슬림세계 고발

“이슬람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살해되고 있다. 이런 집단학살이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전 세계에 경보를 울려야 마땅한 일이다.”

최근 소말리아 출신의 여권 운동가이며 무신론자인 아얀 허시 알리가 미국 시사잡지 뉴스위크에 ‘기독교혐오증의 발흥’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녀는 무슬림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독교 박해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 전세계에 고발하고 있다. 다음은 이 기고문 요약.

흔히 무슬림이라고 하면 서방에선 차별과 학대의 피해자이며,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선 ‘아랍의 봄’ 운동으로 독재 정권과 싸우는 투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은 완전히 반판이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어가지만 좀처럼 세계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전투가 진행 중이다.

무슬림을 희생자로 그리든 영웅으로 묘사하든 그 어느 쪽도 기껏해야 일부만 옳을 뿐이다. 최근 서아프리카와 중동부터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까지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 소수 집단인 기독교인을 향한 폭력적인 탄압이 예사일이 돼버렸다. 어떤 국가에선 정부와 정부의 대리 집단이 교회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을 감금한다. 또 어떤 나라에선 반군 단체와 자경단이 독자적으로 기독교인을 살해하거나 수세기 동안 뿌

리 내린 곳에서 쫓아낸다.

언론은 대개 이 문제에 침묵을 지키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그중 하나는 추가적인 폭력 도발의 우려인 듯하다. 다른 하나는 로비단체의 압력 행사일 가능성이 크다. 이슬람협력기구(OIC, 1969년 창립됐으며 국민 다수가 무슬림인 57개 회원국으로 구성됐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 ‘이슬람의 유엔’으로 불린다)과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 미국 내 이슬람 이익단체)가 대표적인 로비집단이다. 지난 10년 동안 이들을 비롯해 여러 유사 단체들이 서방의 유력 인사들과 언론인들을 설득한 결과 반이슬람 차별은 ‘이슬람혐오증(Islamophobia)’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냈다. 그 표현은 외국인혐오증(xenophobia)이나 동성애혐오증(homophobia)과 소수자를 폭압하는 ‘악행’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과 추세를 공정하게 평가해보자.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슬람혐오증은 그 규모와 강도에서 유혈 ‘기독교혐오증(Christophobia)’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하다. 우리는 이 종교적 불관용의 폭력적 표출을 둘러싼 침묵의 음모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 무엇보다 기독교의 운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슬람권에 사는 모든 종교적 소수 집단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너무도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인은 신성모독법부터 잔혹한 살인, 폭탄테러, 상해와 성지 방화까지 술한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

나이지리아를 보자. 그곳의 많은 기독교인은 이 모든 형태의 박해를 당한다. 나이지리아는 이슬람 국가 중 인구 대비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1억6000만 명 중 40%). 나이지리아의 무슬림과 기독교인은 오랫동안 거의 내전 상태로 지냈다.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이 긴장의 많은 부분은 이슬람 과격파가 부추긴다.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최근에 생겨난 이슬람 과격단체는 ‘보코 하람(Boko Haram)’이다.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보코 하람은 ‘서방식 교육은 신성모독’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샤리아(이슬람 율법)의 확립을 위해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을 말살하겠다고 선언했다.

보코 하람은 2012년 1월에만 54명을 살해했다. 2011년엔 보코 하람 단원들이 최소 510명의 목숨을 앗았고, 나이지리아 북부 10개 주에서 교회 350개 이상을 불태우거나 파괴했다. 그들은 총과 휘발유 폭탄만이 아니라 마세티(날이 넓은 칼)까지 사용한다. 그들은 순진한 시민을 공격하면서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친다. 그들의 공격 목표는 교회,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신도(가톨릭 신자 42명을 살해했다), 슬



집, 마을회관, 미용실, 은행이었다. 기독교 성직자, 정치인, 학생, 경찰, 군인, 그리고 그런 폭력을 규탄하는 이슬람 성직자까지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의 공격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처음엔 모터바이크 뒤에 타고 가면서 치고 내뿜는 기습 암살 같은 조잡한 방식을 사용했지만 AP 보도에 따르면 보코 하람의 최근 공격은 이전보다 더 효과적이고 정교해졌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 종교적 자유센터의 나나 셰이 소장은 여러 이슬람 국가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보호막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슬람권 사회에서 종교적 소수 집단을 돕기 위해 서방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선 문제 있는 나라들에 제공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 다음 무역과 투자를 이용해야 한다. 외교적 압박만이 아니라 이런 원조와 무역 관계도 모든 국민에게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서방 세계의 이슬람혐오증을 둘러싼 이야기는 과장된 사건들일뿐이다. 오히려 이슬람권에 만연해가는 기독교혐오증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나눔&나눔 삶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코너

“한 길만 못 가봤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이제는...”

좁은 길을 걷기로 결단한 안선익 목사(대전성산감리교회)

대전성산감리교회는 24시간 365일 만민의 기도하는 집 열방기도센터(All Nations Prayer Center)를 시작한 지 3년째를 맞고 있다. 이 교회 담임 안선익 목사는 올초 서울에서 열방기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충신감리교회에서 개관 2주년 기념 기도컨퍼런스에 참여, 그동안 주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독자들과 나누고 싶어 기사는 대전으로 향했다.

- 느헤미야52기도 컨퍼런스에서 ‘공격하는 교회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원래 교회의 본질은 (사단을) 공격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당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방어하는데만 급급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공격하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주님이 공격하시니까 그분을 쫓는 우리도 공격하는 교회가 된 거죠.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전진할 수 밖에 없는 교회 말이에요. 따로 뭘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죠. 열방기도센터를 섬기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싸우는 교회라는 사실을”

- 그런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일반적으로 당하기만 했지요. 공격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달라졌어요. 우리가 공격받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놓는 순간 우리 스스로는 물론 수많은 영혼들을 빼앗긴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어요. 영적전투를 실감하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52기도를 하면서 피부로 체감하게 됐죠. 그리고 열방기도센터를 통해 열방에서 적들의 수중에 갇혀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기도를 하게하시더군요. 결국 주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군사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죠.”

- 대전성산교회 열방기도센터를 소개해주세요.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된 곳이에요. 한마디로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곳의 열방의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쉬지 않고 24시간 365일 동안 간구하는... 그(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대전성산교회 열방기도센터예요.”

-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하네요.

“올해로 햇수가 3년째가 되는군요. 3년여 전 느헤미야52기도를 하루, 3일, 일주일, 3주씩 작성하며 이어가던 중 한 달 간 24시간을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한 달간의 기도가 마무리 될 때쯤 ‘주님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너 자동차 시동은 왜 걸었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가려구요’ 그렇게 답했죠. ‘그래, 한 달 동안 열방기도센터를 위해 시동 걸었으면 이제 가면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느헤미야52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열방기도센터를 시작하게 됐어요. (웃음)”

- 교회 성도님들이 그 비전을 부담없이 받아들였나요?

“당시 걸음으로 보기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

였죠. 그 무렵 100여명의 성도들이 나갔을 때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느헤미야52기도를 시작한 것예요. 당시 상황에서 그저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체 되느냐 아니냐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고, 생명처럼 붙잡은 거였죠. 지금도 이 기도는 저희에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생명이예요.”

-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 수 있을까요?

“2008년 좀 제가 십자가 복음 앞에 선 이후, 새롭게 목회의 길을 걷던 시기였어요.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만 전하기로 결단했던 때였죠. 그동안 잘못되었던 저의 목회에 대해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리만 전하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우리 이제 살았구나’ 이런 마음에 성도님들도 좋아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교회 분위기는 싸늘해져 갔어요. 20명, 30명씩 교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어떤 분들은 밤에 찾아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셨어요. 전 솔직히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느헤미야52기도를 시작 할 즈음에는 전 교인 50% 이상이 교회를 떠난 뒤였죠.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고 느헤미야52기도에 올인하게 되었죠.”

- 그런 믿음의 순종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초기에는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하셨으니까 솔직히 그런 기대도 없잖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축복은 1년이 넘도록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뭘까. 궁금해지더군요.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은 어떤 것이지?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더 열방을 품게 하는 것이었고,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축복은 믿음을 더해 주는 것처럼... 기도 위에 기도를 더하시더군요.”

-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주세요.

“성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도 수.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오히려 내적인 것이 세워졌어요. 마치 성전의 요소가 세워지는 것 처럼 견고해진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솔직히 나가셨던 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도 했고, 십자가 복음이 싫어서 나간 분만큼 그 복음을 사모하는 분들이 찾아 올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죠. 그런데 안오더군요. 이런 기대마저 철저히 꺾으신 이후 정말 주님만 기대하게 되더군요.”

- 지금 열방기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에게 열방기도센터는 단순히 하나의 기관이 아니에요. 이 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열방을 위해 기도 하면서 말씀 훈련이 필요함을 깨달았고, 중간 중간 성경공부가 다시 시작되고, 공 예배때는 열방기도센터에서 진행되는 성경 본문을 더 자세히 전하게 되었죠. 한 사람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 성전으로 세워지는데 초점을 두고, 교육과 훈련이 함께 병행 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배웠다면 이제는 열방으로 생명이 흘러가기 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죠. 개인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고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는데 열방기도센터가 그 중심에서 있는 것이죠.”

-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조화롭게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 열방기도센터가 제대로 가동되면 너나할 것 없이 모두 열방기도센터를 세우려고할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군요.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면 말려야죠. 그러나 저는 제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 일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말할 수 없었어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 느헤미야52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10개의 지역교회가 연합하고, 몇 개의 선교단체들이 연합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흥분되기도 했죠. 정말 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품들은 사라지고 홀로 기도해야 할 때도 많았어요. 사람 많이 모이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에게 생명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한 사람의 순종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생명이 되면 될 수 밖에 없는 일이에요.”

- 복음과 기도가 생명이 되기까지 목사님의 삶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싶습니다.

“방황하는 10대와 20대 초반을 보냈어요. 사단의 철저한 종으로 살다가 어머니의 유언으로 신학을 하게 됐죠. 남들은 학(學)을 배울 때 저는 신학교 1학년을 부르짖으며 기도로 보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죠. 이후 목회를 하면서 세상 말로 잘 나갔어요. 부흥강사로 이곳저곳 집회를 하면서, 돈, 명예 모두 얻었고, 결국 타락의 길을 걸었죠. 두려움에 모든 일을 접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채 부흥을 경험하니 또 다시 타락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에 빠져 만신창이가 되었죠. 걸음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나 같은 사람은 지옥에 갈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아내를 통해 복음학교를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이 끝장난 상태에서 복음 앞에 서게 되었죠. 목마른 사슴이 사냥꾼의 총부리를 보고도 샘물을 향해 미친 듯 달려가듯 그때서야 저에게 복음이 전부임을 알았죠.”

- 복음이 실재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솔직히 복음을 만난 후 다시 나타내지고, 게을러지면서 넘어지기도 많이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전과 같이 넘어진 그곳에 계속 머물지 않아요. 내게 예수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며 나의 생명되신 주님 의지하며 더 큰 확신 속에 일어서게 되었어요. 사단은 저를 잘 알아요. 제가 넘어질수록 더 강하게 일어서게 될 것임을요. 저는 해보고 싶은 게 없을 만큼 이전까지 다해보며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어떤 길이든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길만 못 가봤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이전 다른 길이 제게 없어요. 이 길 밖에는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겐 이 좁은 길이 이젠 편해요.”

-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아내의 지원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러나 열방기도센터를 처음 시작할 무렵, 아내는 저를 거의 안 도와주었어요.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아내는 제가 싫으니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싫었던거죠. 그런데 지금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은 다 좋아해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 중에 하나예요. 이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경험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웃음). 그리고 함께 기도해준 성도님들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걸음을 함께 견고 있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예요.”

- 끝으로 기도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선교완성이라는 마라톤의 마지막 바통은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왜 저희 같은 사람에게 주셨는지 목상하면 전심으로 달려갈 수 밖에 없어요. 우리만의 열방기도센터가 아니라 온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일을 위해 섬기고 싶어요. 연속 연쇄 연합기도 외에도 예배가 계속 이어지도록 따로 준비하는 일도 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섬기는 미션 홀도 구체화 하고 있어요. 기도가 필요한 일이구요. 무엇보다 열방의 파수꾼들이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지원 사격할 교회들이 더 일어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신부와 군사로 무장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의 삶

“새벽시간에 긴급한 기도제목으로 즐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기도자들의 무릎 꿇는 순종이 각처에서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지난 2월 20일~25일 '천성교회' 느헤미야52기도에 참여했던 기도자들의 후기를 소개한다.<편집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던 사도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김은영

느헤미야52기도를 급하게 신청하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동안 이사야 56장 7절 말씀으로 교회가 진정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많이 걱정되고 긴장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무척이나 기대했습니다.

이전에 함께하지 않았던 분들이 새롭게 참여하여 기도로 연합하는 것을 보며 약속의 말씀이 더욱 실감났고, 어린 아이들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켰습니다. 주님은 가장 힘들었던 새벽시간에 긴급한 기도제목들을 보여 주시며 우리로 결코 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이 기도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걸사람은 낱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신은 피곤하나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기도로 인해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고 기도하며 각 사람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은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취주셨습니다.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던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며 계속해서 복음의 행진을 이어갔던 것을 보며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보고 들은 모든 일에 증인이 되기로 결단 하였습니다.

주님이시기에 가능한 연합된 기도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생명으로 살아 세상에서 구별되어 빛을 발하는 존재로 세워주시고 이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이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강윤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겠삽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마 8:8~9)

느헤미야52기도에서 처음 기도를 인도한 시간에 울컥하며 눈물이 나게 한 말씀이 있다. 마태복음 8장 5~13절과 그 앞장에 적혀 있던 말씀이다.

"그는 예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금식을 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평소보다 제사를 더 많이 드린 것도 아니다. 그리고 구제와 봉사로 자신의 의를 더 주장하면서 자격을 갖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믿었던 것이다"

'나는 리더이고 찬양인도자니까 더 열심을 내야해, 시험이 와도 빨리 이겨 내야해. 리더고, 인도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주어진 자격에 부합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책임 맡은 역할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어떠한 자격에 걸맞은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리더의 믿음, 성도의 믿음 등 사람 편에서 구분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이다! 말과 글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52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다.

내가 리더이든 인도자이든 교사이든 그리고 내 나이가 어떻게든 간에 달라질 것은 없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 한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면 되는 것이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는 인간의
존재가하나님께
참여하는 것"

기도에 대한 진리를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고전 명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옛적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일이 가능케된 역사에는 자신을 기도에 전폭적으로 드린 사람들이 있었다. 이처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원하시며 또 취하셔야만 했다.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솔로몬도 성전 봉헌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겐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은 배단당하기 바로 직전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고 기도하셨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 5:7)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본성 즉 혼과 마음과 몸의 모든 힘을 투입시킨 기도였다.

기도는 이처럼 인간 존재 전체 즉, 정신과 영혼과 몸 전체를 요구한다. 전인(全人) 즉 삶, 마음, 성격, 정신 그 모두가 기도에 가담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전존재이다.

바울은 이러한 기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과 함께 기도하라고 강권하고 있다. "나와 힘을 같이 하여"(롬 15:30) 이것은 싸워야 할 큰 싸움이며 또 이겨야 할 싸움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군인처럼 생각을 건 싸움을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가 기도에 투입하는 힘에 달려 있다.

기도의 본질(1982), E. M. 바운즈,
생명의말씀사

선교정보네트워크

대학캠퍼스, 스포츠, 기도 사역 단기선교사 모집

"선교사가 되는 과정, 단기 혹은 장기로 헌신하기 위한 절차, 훈련기간 사역 종류 등에 대해 궁금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의 걸음을 돕는 멘토이자 선교자원은행인 요셉의창고 미니스트리(대표 황적수 선교사)는 올 봄, 온 열방을 섬길 선교자원을 모집한다. 모집 지역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베트남 = 대학 캠퍼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하게 되며 사역기간은 1년

▶C국 = 현지병원 나환자 사역 / 필리핀 = 현지 어린이 사역

아메리카

▶온두라스 : 유치원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지도 감독해줄 교사 모집.

▶도미니카공화국 : 어린이들을 복음과



기도로 양육 할 한인 교회학교 교사.

유럽

▶영국 : 기도성벽을 쌓을 복음과 기도의 증인.

▶스페인 : 현지 원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게 되며 6개월에서 1년 기간으로 섬김

▶우크라이나 : 건축(전문가가 아니어도 무방)관련 영역을 섬길 형제를 모집.

아프리카

▶케냐 : 센터관리 및 사역에 동역하며 형제 1명을 모집.

▶감비아 : 체육(축구, 태권도) 및 일반 사역 동역자 모집.

문의 : ☎ 070-7417-4156~7, 010-2389-4156, cafe.naver.com/jsministry, 이메일 jsministry@hanmail.net

2012년 3,4월의 「느헤미야52기도」참여 교회

☞ 13주차 (3월26일~31일)
대구호산나교회-느헤미야정명식
대전성산감리교회-느헤미야이영훈
나무와 씨앗(지역교회연합)-느헤미야김기성
동천무등교회-느헤미야심남철
평안교회-느헤미야송현주

☞ 14주차 (4월2일~7일)
청주임마누엘감리교회-느헤미야김현중
하늘꿈연동교회-느헤미야이옥신
나무와씨앗교회-느헤미야신순애
세교중앙교회-느헤미야윤재성

「느헤미야52기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느헤미야52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070-7417-4366~7, 010-419-24365

*느헤미야는 이 기도모임의 주관자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신문을 교회교육 교재(NIE)로 활용

복음기도신문, 중보기도모임 등에서 활용

공립 교육은 물론 교육당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교육과정에 세속적인 가치가 밀려오는 이때에, 기독교신문이 기독교 교육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교육과 함께 교회 교육분야에서도 오랫동안 이슈로 떠올랐지만, 이렇다 할 교재나 교육방법이 자릴 잡지 못한 상황에서 기독교신문 활용교육이 기대된다고 미주 크리스찬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이른바 신문활용교육의 시초는 193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뉴욕타임스>는 학교 교실에 신문을 배포하면서 이것을 교재 또는 보조교재로 활용해서 학습활동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한다.

이후 1958년 미국신문발행협회(ANPA)는 NIC(Newspaper in the Classroom)라는 프로그램을 주도하면서, 그냥 버려지는 신문을 활용할 수 있는 교재로 끌어 올리는 데 일조를 했다.

주로 학교에만 국한됐던 NIC 프로그램은, 1976년 신문활용교육(NIE, Newspaper in Education)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단체, 기업, 각종 기관 등의 학습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내 900여 개가 넘는 신문사가 신문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만여 개가 넘는 학교가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활용교육은 따로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 자체에 실리는 내



용과 사건, 칼럼 등을 교육기관에서 활용하여 논술자료로 사용하거나 토론 등의 주제로 채택한다. 실제로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중, 고등학생의 논리력과 논술, 그리고 컴퓨터 세대들의 문자사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료로서 신문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 신문의 신문활용교육(NIE)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기독교신문과 기독교 교육 기관, 가정 사이에서의 다양한 NIE 활용방안에 관해서도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기독교신문에는 매일, 혹은 매주 기독교 관련 이슈와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의 칼럼이 소개된다.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는 이런 소중한 정보들은 신학교에서 신학과 목회학 등을 배우는 학생들이나, 요즘 젊은이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 교계 관련 교육자들, 그리고 단체 등에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에서의 신문활용교육의 예를 살펴보면, <국민일보>가 '말씀 NIE'를 만들어 교회와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한 교사들의 반응은,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적 올바른 가치관과 비판력 등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또한 <복음기도신문>의 경우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중보기도 모임 등에 활용하여,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기사와 말씀에 근거한 기도문으로 열방의 상황과 인류역사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자랑은 모든 영역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적용이 되고 있다.

티앤알미션, 제2기 말씀기도학교 모집

4월 2일부터 16일까지 우편접수

선교단체 티앤알미션(대표 박종진 선교사)은 제2기 말씀기도학교의 훈련생과 섬김이를 모집한다. 훈련기간은 2012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3박 4일)이며 참가자격은 순회선교단 복음학교를 수료한 목회자 및 성도들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4월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티앤알미션 카페 자료실 메뉴에서 원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섬김이는 같은 기간 안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 032-889-0221 070-7417-0221 010-6803-0222나 cafe.naver.com/tnrmission.

美 크리스천 선수 팀 티보, 미식 축구로 복음 전파

요3:16 인기검색어로 부상시켜



미국의 크리스천 미식축구 영웅인 팀 티보가 올해 초 한 경기에서 달린 패싱 거리의 합계가 316야드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요한복음3장16절'이 구글과 야후에서 인기검색어로 떠올랐다. 조회수는 무려 1억2천만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재학 시절 눈 부근에 '요한복음 3:16' 새도우를 그려넣어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알렸던 티보는 프로 진입 이후 이같은 방법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승점을 올린 후 무릎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이 성경구절이 어린시절 자신의 인생을 바꿨으며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의 탁월한 경기 기량과 무릎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티보잉'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한편, 선교사의 자녀(MK)로 성장한 그는 최근 한 교회에서 자신의 최우선 순위는 풋볼도 가족도 아닌 믿음이라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도24365 일일기도학교 열려

문화행동아트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기도시간 가져

지난 3월 초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에 위치한 문화행동 아트리 연습실에서 청소년 문화복음학교 액세스(Acces)를 수료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도24365 신규일일기도학교가 열렸다.

게임중독과 인터넷, 자기계발에만 급급한 이 세대 속에서 하루 한 시간 열방을 품고 기도를 작성하는 이 학교에 무려 30여명의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참석했다.

이날 메시지를 전한 황장현 선교사(문화행동 아트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주제로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이 자리까지 왔지만 들은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까지 따라 가야한다"며 "예수님을 사랑

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고 선포했다.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해 보는 '한 시간 기도의 실제' 시간에는 러시아의 급증하는 청소년의 자살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한마음으로 러시아의 다음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이날 기도 시간을 약정한 청소년들은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게 된다. 기도24365 일일기도학교는 매달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의 : ☎ 032-75-24365, 010-3872-4365, www.prayer24365.org



영상으로 만나는 다시복음앞에 (Return to the Gospel) 출시

2011년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3박 4일간 열린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실황이 DVD로 출시되었습니다. 15명의 강사진이 전한 17편의 주옥같은 복음과 기도의 메시지를 이제 가정,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기 도동맹에서 기획하고,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제작한 이번 DVD 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사모하는 복음기 도동맹군들이 더욱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 Disk 1 : 다시복음앞에 전체 스케치
김용의 선교사 / 우리 생애 가장 최고의 날
- Disk 2 : 김용의 선교사 /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유병국 선교사 / 복음의 주제가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 Disk 3 : 권영조 목사 / 복음과 기도
유영기 교수 /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총체적 복음
- Disk 4 : 박보영 목사 /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유기성 목사 /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 Disk 5 : 송천호 목사 / 나는 복음에 빛진자
정재현 집사 /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간 정규만 장로의 가족복음사

1세트 구입시 33,000원이며 택배비는 별도 2,500원입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1002-01-121175 김송이]

- Disk 6 : 안정규 선교사 / 소유와 권위 그리고 연합
박영철 교수 / 다시 그 진리 앞으로
- Disk 7 : 김성로 목사 / 사명
김용의 선교사 / 우리 생애 최고의 능력
- Disk 8 : 송신호 목사 / 주와 함께 죽은 자의 삶
이동휘 목사 / 세계로 출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 Disk 9 : 류용렬 교수 / 목숨 바칠 사명을 발견했는가?
유기성 목사 /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느헤미야52기도」 6종 기도정보집 Ver.5 출간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52기도」 Ver.5(다섯번째) 기도정보집이 발간되었습니다. 「느헤미야52기도」 기도정보집은 기도24365 본부에서 기획하고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제작, 발간하며 매시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도정보집입니다.



6종 기도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음의 영광
2.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교회
3. 복음으로 일어날 다음세대
4. 복음에 반역하는 죄
5. 복음의 통로 디아스포라(이주민)
6. 복음과 영적전쟁

각 권 구입시 6,000원이며, 세트 구입시는 30,000원(권당 5,000원)입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1002-01-121175 김송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커다란 장벽은 바로 '나'였다.

미국에서 한 선교단체의 공동체훈련을 받은 재미교포가 믿음의 고백을 보내왔다. 4개월간의 일정을 마치고 새롭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조심스럽지만 당당한 믿음의 선포를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입학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상황도 여의치 않았다. 그런데 왜 끝까지 고집해서 왔을까.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엡 1:18-19),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이 두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입소했다. 4년 같았던 딱 찬 4개월. "떠나온 것이 아니고 돌아온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본격적인 훈련은 시작됐다.

학기 초반부에 내 마음 속에 질문은 끊이지 않았다. '도대체 복음을 사는 것이 뭐야? 나는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가?'였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하셨다. 4개월간의 훈련

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 "나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실체가 되기까지, 믿음의 여정들은 치열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커다란 장벽은 바로 '나'였다.

적극적, 긍정적 마인드, 낙천적인 성격이 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내 높은 자존감은 좀처럼 나를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스스로의 의지로 진리를 살아 내보려 안간힘을 쓸 때 기다렸던 절망이 찾아왔다. 믿음을 적용하는 아웃리치(outreach)를 통해 내가 얼마나 스스로 높아져 주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고 싶어 하는지. 주님 앞에 이 악독한 자아가 발각됐다.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끊임없이 끈질긴 뭔가가 되려는 '야망'을 주님이 적발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여기고 여긴바대로 드리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열심, 최선, 선한 자아, 자기 의, 미래, 성격, 취향, 세속적 가치관, 부모님, 내 고집, 식탐, 농담, 책임



감과 의무감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확증했다. 한 영역 한 영역 십자가로 여기고 드리는 과정은 때론 뼈가 깎이는 듯한 아픔을 동반할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너무나 죽기 싫어 뒷걸음치는 겁쟁이임을 보았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주님 없는 내 삶을 더 이상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다. 부르심의 소망, 기쁨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자기 부인, 주님을 따르는 것, 십자가 없이는 모두 불가능하며 알 길 또한 없다.

이제는 사단의 달콤한 죄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권세를 취한다. 나는 또 그를 대적하며 싸워 이기는 주님의 좋은 군사이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절대 하나에 머무를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열방

을 살리고도 남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나의 소망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 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내가 할 일은 오직 순종뿐이다. 이 완전한 주님의 뜻에 나를 드린다.

나의 부르심을 흔들 수 있는 여지는 부르심에 대한 망각이다. 부르심을 망각한다는 뜻은 하나님에 대해 망각한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이다. '복음과 기도'를 내 생명으로 붙잡을 것이다. 디베라 호수의 베드로처럼 이제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조차도 믿음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좋은 군사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강정결

뷰즈 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다리(Most)』

“그들은 한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미국의 보비 가라베디안 감독에 의해 2003년 체코에서 촬영된 29분 길이의 단편영화 모스트(most)가 오늘 감상할 영화 제목이다. 2004년 제76회 아카데미상식 단편영화작품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던 작품이다.

제목 '모스트'는 체코어로 다리(The Bridge)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완전히 떨어져 있는 대상 사이를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는 이 영화의 중요한 배경이며 그 속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사건을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화의 주인공 로다와 그의 아버지는 결코 나눌 수 없는 사이였다.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아버지와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은 한 몸이나 다름없었다.

그 아들 로다는 아버지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보고 싶어 한다. 아버지는 부산의 옛 영도다리 같은 가동교(可動橋)에서 근무하고 있다. 배가 오면 다리를 올려주고 기차가 지나가면 다리를 내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는 어느날 아들을 데리고 출근하게 된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예정시간보다 이르게 기차가 속도를 올리며 다리로 접근해 오고 있었고, 그때 아버지는 기계점검으로 이 일을 눈치 채지 못한다. 밖에서 낚시를 하던 아들이 급한 마음에 아버지를 부르다가 수동으로 다리를 내리려는 생각에 기계실에 손을 넣지만, 그만 기계 사이로 빠지고 만다.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 기계실 안 톱니에 끼어있는 아들의 모습도 발견한다. 이때 피하고 싶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고, 아버지는 무엇을 택할지 몰라 절규한다.

기차에 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인가. 아니면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 세사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버지는 결국 사람들을 살릴 것을 선택하고, 레버를 힘겹게 내린다. 그리고 동시에 아들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나...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오열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무심히 그 옆을 지나가는 기차에 탄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마약을 한 어느 여인은 오열하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며 이상이 생각이 들었고, 기차는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가 버린다.

몇 년이 흐른 후 그 여인은 자신의 어린 아이를 안고 가다가 로다의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다. 그 여인의 아이는 로다의 아버지를 보며 웃음을 띠었고, 로다의 아버지는 함께 웃으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올리면서 이 영화는 마쳐진다.

기차에 탄 사람들을 향한 로다의 아버지의 감정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 비교할 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한 이 이야기는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였다.

기차에 탔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한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것은 마치 주님을 모르며 살던 지난 나의 모습과 동일했다. 주님의 희생으로 얻은 생명인데도 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임을 알지 못했고, 소망 없이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이유가 어



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보라! 다리 저편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드는 주님을. 답 없는 살던 우리 삶을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친히 그 사이를 이어주고 다리가 되어 주신 주님을 목상하며 이전과 같이 살 수는 없음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드라마 | 체코 | Most | 29분 | 전체관람가 | 2003)

E.S

■ 미디어 동역자 기도모임 개최

복음과기도미디어는 3월 24일(토) 인천 중구 항동 사무실에서 미디어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역자들과 만나, 기도모임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이 기도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오니 미디어 사역에 관심을 갖는 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010-4612-0410

■ 후원자 명단

(2012년 3월 1일 ~ 3월 15일, 가나다 순)

개인

김기석 김현중 김현진 민용기 박경희 박옥연 배용구 서미란 손형남 염정원 유자인 윤유미 이영미 이정호 정영훈 무명x1

교회 및 단체

국제선교회 마하나임십대교회 서울제일교회 성도교회 양덕원교회 진영대성교회

*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포하며 함께 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희망구독부수와 주소를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제작과 배포에 헌금으로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17454
예금주:김송이(복음기도신문)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

☎ 070-7417-0408-10
E-mail : gnpnews@gnmedia.org
(400-800)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44
요셉의 창고 2F 복음기도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강호, 인쇄인 : 서안목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인천.다0603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